

바른미래당 또 '반쪽 최고위' 내홍 극심

4.3 보궐선거 패배로 촉발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낮은 자세로 내홍 진화에 주력하는데 반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접점을 찾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전 대표와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론' 등 당내 갈등 현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고위원회의는 또다시 '반쪽 회의'로 열려 이같은 당내 사정을 반영했다.

예고한 대로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이 모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청년 최고위원만 자리를 지켰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당내 극심한 내홍을 의식한 듯 낮은 자세를 보였다.

손 대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 저의 부덕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저나 다른 당직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로 감정을 낮추고 이해하며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자세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전날 대학 강연에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설을 일축한 점을 거론하면서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계 '총사퇴' vs 손 "한분씩 만날 것"

유승민·정병국 '총사퇴론'에 대한 입장 관측

당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며 "당의 큰 자산으로서 정치 지도자답게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한국당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 대표로서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을 향해 "최고위에 참석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손 대표는 전날 바른정당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과 단둘이 오찬을 하고 이러한 뜻을 전하며 갈등 봉합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출신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

며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마련한 만찬 자리에 불참한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가 아니면 중간평가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당이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 "선거 결과에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총사퇴를 얘기한 것이다. 지금은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진취적이고 이슈를 주도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강병운 기자

서영교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과는 달라"

"전면 시행시 재원 1조5천억원 새로 편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누리과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때는 증액교부금을 마련하지 않은 형태로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겼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증액교부금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중앙정부가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청에 빚을 떠넘기는 행태는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

장을 가졌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가 증액교부금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게 통과되면 2024년까지 곧 재원이 마련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발의로 지방재정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1년 전 학년을 다 실시한다고 계획되었는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도 약 5천

억원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 지원되고 있다. 새로 편성해야 할 재원은 1조5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자율형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그런 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돼왔다"며 "이번에는 그 학교들이 제외되고 향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취학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출산이 적고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질을 높이려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 강원산불 허위 유포자 고발 총 89건 발건... 명예훼손죄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은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며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들 89개의 허위조작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최경환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방문

국회대표단, 임정수립 100주년 맞아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을)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회 대표단으로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를 방문한다. 여야 대표단과 독립유공자 후손의임시정부청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속소로 사용했던 옛 대동여사(大同旅舍) 건물인 현 용안(永安)백화점을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교민들을 만난다.

또한 중국 상해의매한운봉길기념관을 방문한 후 홍차오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최 최고위원은 또 13, 14일 1박2일 일



정으로 신안군 하의도에서 개최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김대중청년캠프'에도 참석한다.

최 최고위원은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 특히 이 행사에는 민주평화당의 수도권 원외위원장 10여명이 참석해 향후 민주평화당의 진로와 제3기 대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손금주 의원 '바른정치언어상' 대상 수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이 10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선정한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300여명의 언론·법·정치학 전공학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단체로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2011년부터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치언어상은 대학생 모니터링단이란해 동안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식 회의 발언을 분석, 평가하고, 각 상임위원 동료 의원들의 추천 점수를



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손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품위 있는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치권의 바른 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영세 서민 최고 이자율 22.3%로 낮춰야"

송갑석, 서민 지원 금융대책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이 10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서민 지원 금융대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은행 및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보유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법안은 현행 사인간 금전 대차 최고이자율 24%를 22.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자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율 27.9%를 22.3%로 인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송 의원은 "장기적 저금리 시대에 도 불구하고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회생 재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상가 (급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23평 (주거, 사무실 가능 / 방2개 가능)
 ■ 올 리모델링 완료

시세 1억3천
매가 8천500만 (웅3천만)

장성 토지매매

■ 장성호(담) 2분지리 장성호 (유원지 개발예정) (출렁다리 관광지개선)
 ■ 국도 2차선 도로점 (장성 JC 하남대로 이용시 상무지구에서 15분)

① 106평 ▶ 매가 5천만	1) 장성읍 백계리 → (363평) 1억 1천만
② 200평 ▶ 매가 1억	2) 장성읍 안평리 → (523평) 1억 6천만
③ 1,478평 ▶ 매가 7억1천만	3) 장성군 동화면 → (514평) 1억3천만
	4) 장성군 동화면 → (517평) 1억2천5백만
	5) 광주 서구 서창동 → (196평) 5억4,800만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 6천만
(웅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매주개강)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② 특별실전반 (특수)
(개발·유치권·지분·법정지상권·특수물권)
 ③ 컨설팅 전문반
(책상 컴퓨터 무료제공 - 주 1회 물건분석)

상가건물/근린주택	근린상가
북구 문흥동 (7층 중 6층 상가) 전용 - 226평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상업지 모든업종 가능 ▶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4억2천만	1.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1천 2. 광산구 우산동 (4층중2층) (전용 121평) ▶ 감평가 14억 → 최저가 6억3천 3. 광산구 송정동 (주택) 광산구청 바로 앞 ▶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4. 광산구 운남동 마트 (아파트 상가) 토 74평 건 117평 ▶ 감평가 3억4천 → 최저가 2억3천 5.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6. 서구 치평동 (대우금호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7백 7. 서구 풍암동 (신암마트새한) (32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5백 8. 서구 금호동 (일신아파트) (42평) ▶ 감평가 2억6천6백 → 최저가 1억8천6백

062-382-5500 010-6670-9800